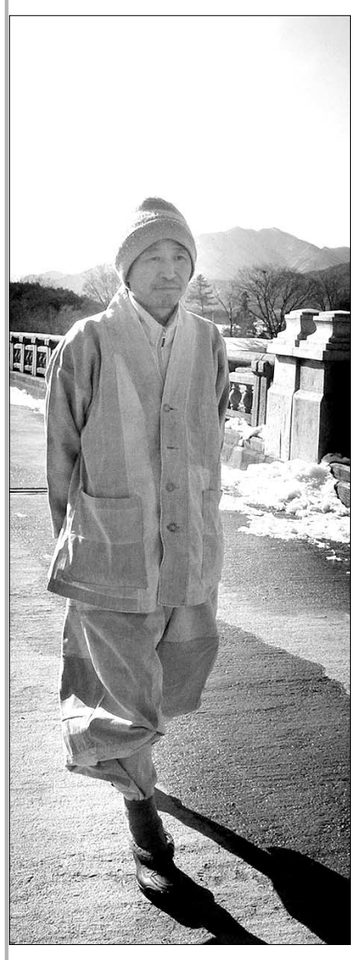
“21세기 인류희망은 ‘생명’ 함께 나눕시다”

3년간의 생명평화 탁발 나서는 도법 스님



지리산에 살면서 생명평화를 갈구하던 도법 스님(실상사 주지)이 법(法)을 구하고자 길(道)을 떠난다. 스님이 구하고자 하는 법은 역시 ‘생명’이고 그 순례를 ‘생명평화탁발’이라 명명했다.

“오십 중반(세수 55세)인 오늘까지 뭔가 해왔다고 믿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정리하다보니 이제 남는 것은 흉내 낼 것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의 탁발과 선재동자가 선지식 찾아 세상을 편력한 흉내라도 내고자합니다. 생명평화를 구걸하기 위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만날 것입니다. 이들을 만나기 위해 관공서 교회 식당 굿당에도 들릴 것입니다.”

스님이 말하는 생명탁발의 첫 걸음은 만물이 생동하는 봄, 3월 1일 지리산 노고단에서 기도를 겸한 발대식으로 시작된다. 먼저 생명결사를 탄생시킨 지리산일대를 걸어갈 것이다. 구례-하동-산청-함양-남원 땅을 면(面)단위별로 하루씩 머물며 생명을 탁발한다.

이어 4·3 비극의 땅 제주도를 구석구석 돌고 다시 육지로 와서 남녘땅부터 시작해 3년가량 전국을 걸어다닐 예정이다. 이 순례에는 불교환경연대 수경 스님과 시인 이원규 씨가 동행한다.

“구도자에게 있어 탁발은 삶의 방식입니다. 밥을 빌어 육체를 가꾸고 진리를 빌어 자기완성을 실현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일생을 길에서 그렇게 살다갔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스님은 지난해 좌우이념 대립 속에 지리산에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1000일 기도를 회향했다. 기도 중에 이라크 전쟁과 한반도 위기상황을 접했다. 전국 모든 사찰에서 아침저녁으로 스님과 불자들이 평화를 발원하건만 전쟁은 일어났고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 이럴 때 종교와 수행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깨달음도 부처도 수행도 한방에 날아가고 말았다. 앞이 콱 막히고 답답했다. 부처를 흉내내고 선재동자를 흉내 내 저잣거리로 나서야만 풀릴 것 같았다.

3월 지리산 출발
제주 거쳐 다시 육지로
⋮
“죽음까지 각오한
10만명 있으면
한반도 위기 해결
전국민 동참 호소”

스님의 탁발순례는 이미 20년 전 구상된 것이다. 80년대 초반, 스님은 불교의 꽃으로 불리는 화엄사상을 실현하고자 금산사에 화엄학림을 개설했다. 3년 과정의 학림은 첫 졸업생을 배출하고 2기 때 중단됐다. 절망적이었다. 모든 것을 놓고 다시 생각했다. 이때 내린 결론이 순례길에 나서자는 것이었다.

농도인 전북에서 농민을 만나 대화하고 노동이 필요하면 일도 하고 공부하면 무언가 잡힐 것 같았다. 그러나 길 떠나기 직전인 1986년, 재적본사인 금산사 대적광전이 화재로 소실되고 복원하느라 발목 잡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우리는 인류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지구촌 마지막 분단국가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평화로 한반도 위기를 풀 때 빚을 갚게 되고 21세기 인류사회에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스님은 그 방법으로 ‘10만인 생명평화 서약’을 제시한다. 율곡이 10만양병설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를 하지 않아 전쟁의 비극을 맞았고, 그 위기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가 준비해야할 것은 생명평화를 위해 죽음까지 각오하는 10만명이다. 이들이 한반도 유사시 평화를 지킨다면 지구촌의 지성인과 반전 평화론자가 함께 일어나 여론을 형성하고 생명평화는 새로운 인류의 비전이 될 것이라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평화를 소개하고 이 결사에 동참할 것을 탁발하고자 서약인 모집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스님이 말하는 생명은 무엇일까. 스님은 한마디로 ‘현재의 삶’으로 규정한다. 전쟁이 없고 경제나 과학이 발달한다고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삶은 ‘너는 너고 나는 나다’는 식으로 살고 있다. 그러나 너없는 나는 없고 자연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너와 나는 경쟁과 대립이 아니라 도움의 관계이다. 스님이 말하고자 하는 생명평화는 바로 이처럼 ‘더불어 사는 삶’인 것이다.

평소 스님은 입버릇처럼 말한다.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면 도둑놈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다음에 생명평화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자리에서 부처 노릇하면 부처고, 그것이 생명평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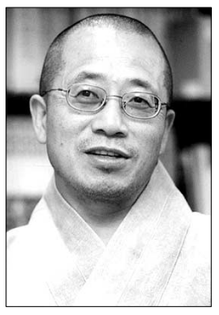
남원 실상사=이준엽 기자

‘삼보일배 정신’ 영국에 알린다

수경 스님 등 英 에코 프라이어서 초청받아

수경 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 사진),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환경운동연합 마용운 국제연대팀장, 창녕환경운동연합 김수경 씨 등이 1월 27일부터 2월 3일 까지 영국을 방문한다.

창녕환경운동연합은 “2월 2일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에코프라이어(Eco-prior)’라는 영국의 한 청소년 동아리에서 새만금 갯벌과 삼보일배의 정신을 배우기 위해 수경 스님 등을 초청했다”며 “특히 2월 1일에는 한국을 비롯, 영국, 미국 · 이탈리아 · 독일 · 스위스 등 전세계 6개국에서 동시에 새만금 갯벌 보전을 기원하는 삼보일배가 열린다”고 1월 15일 밝혔다.



다음달 1일 6개국서 동시에
새만금 갯벌보전 삼보일배

“북한산 관통도로
비종교적 · 정치 타협의 결과”

영국방문단은 2월 1일 람사협약 등록 습지 보호구역인 스니티시엄에서 에코프라이어 회원 40여명과 함께 30여분 동안 삼보일배를 한다. 또 2월 3일까지 스니티시엄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영국의 한 불교단체와 국제조류보호협회, 영국의 습지보전단체(WWT, RSPB) 등을 방문해 자기 참회를 통한 생명살리기인 삼보일배의 뜻을 전한다.

한국에서는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창녕환경운동연합 부설 우포생태학습원에서 우포늪 내 삼각거리까지 삼보일배가 열린다.(참여문의 : 055-532-7856)

한편 수경 스님은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재개와 관련 “‘비종교적, 정치적 타협’의 결과”라며 “심지어 불교계가 또 한번 ‘거래’를 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는데도 내부적으로 진실을 요구하지 못하는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수경 스님은 1월 15일자 한겨레신문 인터뷰 기사에서 이렇게 밝히며 “정작 불교계 내부가 막혀 있다. 종단과 종정을 설득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런 독단적 결정이 나온 것이다”라며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수경 스님은 또 “불교는 우리 사회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이 돼버렸다”며 “동양 최대의 불상이니 팔만대장경 동판색인이니, 그런 호화로운 불사는 부처의 참뜻이 아니다. 더구나 불자들의 순수한 십시일반 정성으로 이뤄야 할 부처의 뜻을 국가 예산 지원이나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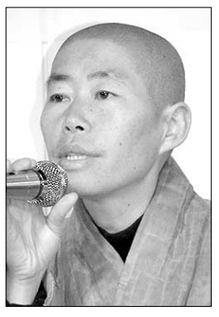
수경 스님은 불교계 내부에 대해서도 “고급 승용차를 타고 국립공원 생태계 파괴에 앞장서고, 문화재 관람료 수입에 연연하는 사찰 수행환경의 내적 빈곤이 외적으로 드러나 중생들에게 ‘감화’는커녕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지율 스님, 환경부장관 고발

환경영향평가 위반 · 직무유기 혐의

천성산지킴이 지율 스님(내원사 산감 · 사진)이 한명숙 환경부장관을 환경영향평가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1월 16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지율 스님은 같은 날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환경부는 경부고속철도 부산 · 경남권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협의 기간이 2001년 11월 2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재협의 의무에 대해 묵과했으며, 재협의 건의 공문을 접수한 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 하여금 사후착공계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해 면죄부를 줬다. 이뿐 아니라, 1994년 1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이후 천성산 구간에서 무제치늪과 화엄늪 등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습지와 30여종 이상의 법적보호동식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환경영향평가 재평가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1백만 도롱뇽 소송인단 모집 계속
각계 전문가로 ‘천성산 1천 인연’ 결성

지율 스님은 1백만 도롱뇽 소송인단 모집 지속을 비롯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세미나 개최와 법률개정운동 △각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천성산 1천 인연 결성’ △출판기념회 개최 등을 향후 일정으로 내놓았다.

기자회견에서는 오동석 교수(동국대 법학과) 등 법률전문가 25명이 도롱뇽 소송을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도롱뇽 소송을 위한 전국순회 홍보단(단장 지율)’은 대구, 광주 등을 거친 뒤 1월 16일 서울 조계사 소설법전에서 해단식을 개최했다.

9일 대구를 찾은 홍보단은 중앙로 대구백화점과 대구 맑고향기롭게 강당 등지에서 거리서명과 홍보 캠페인, 강연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연회에서 지율스님은 슬라이드 상영을 통해 천성산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고속철도 관통으로 인해 발생될 지하수 유출, 늪지 파괴,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해 경고했다.

12일 광주를 찾은 홍보단은 금남로 우체국앞에서 도롱뇽살리기 그림엽서 · 사진전과 거리홍보를 갖고 현장에서 도롱뇽 소송인단 서명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지율스님은 “천성산 도롱뇽은 지역을 떠나 모든 생명의 상징이다”며 “도롱뇽 소송을 통해 잠깐 멈춰 서서 우리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롱뇽을 원고로 하는 ‘도롱뇽 소송’ 4차 심리는 2월 6일 오후 2시 울산지법 111호에서 열린다.

이준엽 · 천미희 · 남동우 · 배지선 기자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파동명상제령 :** 제주(祭主)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원격명상제령 :**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교재 :**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수련일시 :** 1月 넷째주 (화 ~ 금) ◈ **강의장소 :** 부산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 可, 전화문의 바람)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5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 상담 후 결정

빙의
그 영혼의 노숙자들

최영식 지음 | 인화출판사 값 9,500원

빙의에 대한 영혼적 현상들을 파동명상요법으로 해결해 내는 빙의 현상에 대한 필독서 !

저자 법운 최영식은 세계 최초로 탁월한 수행 기법인 **파동명상요법**을 개발하여 2003년 12월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유괴살해암매장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활을 했으며, 그 외에는 전국에서 일어난 많은 강력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2003년 제 58회 경찰의 날을 맞아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그리고 영혼적 현상인 '빙의' 때문에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되찾게 해주는 오늘을 살아가는 상처 받은 영혼들의 진정한 안내자이다.

『 현재 저자는 많은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파동명상 요법을 강의하고있다 』

※ **알립니다.**
강북구 수유리에 동방파동연구소 서울 사무실을 개원하였습니다.
☎ 02)996-6156

동방파동명상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Fax : 051)817-6157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